

생명의 말씀



김상용 목사

- 사) 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대표회장 역임
- 청주지역기독교연회회장 역임
- 명예신학박사
- 예하성 중경총회장
- 청주중앙순복음교회 당회장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상 받는 일을 하는 데는 많은 요인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질 때 상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진리를 잘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앞에 큰 상을 얻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1. 성공적 신앙생활에 필수적인 담대함 담대함은 굳힐 줄 모르는 생각, 마음의

상 받는 담대한 믿음

(히 10:35-39)

용기, 의지의 부단성, 담력 등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재능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 담대함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1) 담대함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자 할 때 꼭 필요한 마음의 자세

두려운 마음을 가진 자는 일을 시작할 엄두도 내지 못하기 때문에 담대함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 꼭 필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믿음의 두려움을 내쫓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일을 맡기시고 성취하게 하셨는데, 어떤 일을 명 함에 있어 먼저 담대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때 대적은 물러가고 승리의 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2)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 마음과 자세가 담대한 신앙

초대 교회 때는 특히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어떠한 시련,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가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과 맞서 싸울 마음의 용기와 담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마 5: 11-12)고 하셨습니다.

3) 우리가 하나님앞에 구하는 것에 담대해야 한다.

믿음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데도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가 많거나 문제가 커서 하나님앞에 못 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손이 짧아졌나고 하였고, 이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 4: 15-16)고 하셨습니다. 주 앞에서 죄인은 주님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죄 시험을 받아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 성공적 신앙생활의 두 번째 필수적 요소인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담대함이 신앙의 전진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라면 인내는 그 전진을 계속해 나가는 데 필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즉 시험을 받을 때도 멈추거나 가리양지 않고 부단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전진해 나가는 삶을 의미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그 다음날 수확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가을에 수확을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38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고 했고, 또한 39절에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한 말씀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3. 크리스천은 목적지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최종목적지는 어디 인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말고 전진해야 합니다.

- 1)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말씀으로 이후에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천국까지 가려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척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풀무밭이 무섭다고 믿음을 버렸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이 무섭다고 믿음을 버렸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2) 뒤로 물러가거나 침륜에 빠져서는 안 된다.

믿음생활에서 뒤로 물러나 인내하지 못하고 배반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엄중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갈밭에 떨어진 씨앗이 햇빛 때문에 죽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뒤로 물러가거나 침륜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3) 구원받은 우리는 결국 승리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결국 승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낙담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히 전진하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의 목표인 하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앞에 상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히 전진하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의 목표인 하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앞에 상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 정

아동문학가 김철수 박사 특강



아동문학가 김철수 박사는 지난 9월 19일(화)부터 20일(수)일까지 2일간 함평군 관내 중학교를 순회하며 인문학 특강을 실시했다. 이 특별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진로교육의 일환으로 함평나비자유학기제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주관했으며, 함평군교육지원청이 후원하는 행사로 진행됐다.

서울신대, 제5회 카우만기념강좌



서울신대와 OMS 선교회가 주최하고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가 주관하는 '제15회 카우만기념강좌'가 오는 10월 10일(화)과 13일(금) 양일에 걸쳐 경기도 부천 서울신학대학교 존도마스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강좌는 '그리스도인의 완전교리의 과거와 현재'라는 주제로 크리스티안스 교수에 프레디대학교 조직신학가 강연을 펼친다.

나사렛대, 개교 63주년 기념행사



나사렛대(총장 임승안)는 지난 9월 14일(목) 개교기념일을 맞아 63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또한 지난 9월 11일(월)부터 15일(금)까지는 생활관 앞 광장에서 나사렛, 그랜 그랜지 라는 주제로 역사자료실에 등록 돼있는 대학의 주요역사현장과 사진 전시를 연대별로 재구성한 80여 점의 사진을 전시하는 역사 사진전도 열렸다.

성경적성경연구원 포럼



성경적성경연구원(원장 팀택권 목사)은 오는 10월 10일(화) 서울 성동구 매봉길 거룩한씨성동교회(담임 최윤영 목사)에서 '오직 성경만이-성경적성경연구원과 종교개혁의 정신'을 주제로 연구원 창립 9주년 기념포럼을 연다. 포럼 주 강사는 팀택권 목사이며, 최윤영 목사가 특강을 인도한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공영방송의 파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공영방송인 KBS와 MBC가 파업을 한 지 열흘이 넘는다. 지난 4일부터나 벌써 두 주장을 넘기고 있다. 각각 현 사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유는 MBC의 경우는 김장겸 사장이 제작 자율성을 침해하였고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그리고 2012년에 친정부 인사를 사장에 임명했다는 이유이다.

그러나 사측(社側)은 이러한 이유로 파업하는 것은 불법이며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로 보고 있다.

KBS의 경우는 고대영 사장이 무리한 조직 개편을 했고 편파방송을 했다는 이유이다. 또 역시 2012년 친정부 인사를 사장에 앉혔었다는 이유이다. 그러나 사측은 이러한 것은 불법이며 KBS 역시도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라는 입장이다.

방송사가 공정한 방송과 방송사 사장(社長)의 명백한 불법에 대하여 바로 잡겠다는 생각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는 시점에서 공영방송이 동시에 전면 파업을 하는 것은 분명히 정치적인 냄새가 난다. 방송은 어떠한 정권과 관계없이 언론으로서의 책무와 공정함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각 공영방송의 파업에 정부는 관계없는 것인가? 문재인 정권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국민과의 약속이었다. 또 '언론 장악 시도'를 막는다는 것도 약속이었다. 목표는 빠르게 정해졌다고 본다.

그렇다면 그 약속은 지켜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방송통신위원

회와 감사원이 공영방송 사장과 야당 측 인사의 뒤를 케는 일들이 벌어졌고, 집권당의 '비밀 문건'에서는 노조/시민단체/학계가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 문건에서 나온 것처럼 지진 사퇴를 거부하던 MBC 사장은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노조는 파업에 들어가고, 일부 언론학자들은 이에 동조하는 성명을 내고, 방송문화진흥회의 야당 측 이사는 사의를 표명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게다가 방송 노조들은 야당 측 인사들이 근무하는 대학 및 직장까지 물러가 고들이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시위까지 벌이고 있다. 이게 어느 나라 풍경인가? 그러면 모든 것이 잘 짜인 '시나리오'처럼 되어져 간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권과 언론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느 정권도 거의 예외 없이 언론과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권력을 쟁취한 뒤에는 치열하게 언론을 장악하려 했음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전 정권에서 임명한 사장과 이들을 온갖 권력과 물리적 방법을 통하여 몰아내려 한다면 국민들은 이를 모를까? 지금 정권과 관련되어 행해지는 공영방송 파업과 방송 노조의 행동을 국민들은 고스란히 지켜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정권과 공영방송 노조가 싫어하는 인사들을 내쫓는다고 하여 방송과 정권의 유착관계는 청산되는 것인가? 아니다. 방송 지배구조의 후견인을 지켜주는 막강한 정권이 살아 있는 한 그런 약속은 결코 지켜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현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과 약속한 '언론 장악 시도'를 막는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래야 정권과 언론의 잘못된 유착관계의 고리가 드디어 끊어지게 되는 것이다.

또 현 방송사의 이사들도 당장 쫓아내지 않아도 임기가 되면 자연히 물러날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래야 현 정부가 언론 장악 시도에 끼여들지 않았다는 걸백(鐵白)이 증명되는 것이다.

현재 공영방송의 파업으로 골탕을 먹는 것은 국민들이며 언론 수용자들이다. 각 공영방송은 국민들의 자산인 전파를 사용하고 있으며 KBS의 경우는 국민들이 낸 시청료 수천억 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공영방송이 정치적 이유로 '부실방송'과 '결방' 등을 일삼고 있다.

이는 방송의 주인인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것이며 정권과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국민을 불모로 잡고 있는 것이다. 당장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언론노조와 이에 동조하는 모든 세력들은 물러나야 하며 지금까지 지행된 일들에 대해서도 지속(自肅)해야 한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8년도 목사고시 공고

2018년도 목사고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서 류 접 수 : ① 일시: 2017. 8. 31(목)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② 장소: 총회본부(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③ 방법: 등기우편
- * 목사고시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총회홈페이지(www.aogk.org)→ 자료실→ 서식다운로드→ 교단서식→ 제15호 목사고시청원서(구비서류첨부)→ 2부 작성→ 지방회에 제출 → 지방회임원회 심의 → 1부 지방회 보관, 1부 총회본부에 제출.
- * 총회목회대학원 2학년 재학생은 우선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12월 졸업과 동시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다.
2. 서 류 심 사 : ① 일시: 2017. 9. 07(목) 오전11시 ② 장소: 총회본부 회의실
3. 오리엔테이션: ① 일시: 2017. 9. 21(목)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본부
4. 목사고시료 : ① 납부일: 2017. 8. 31(목)까지 ② 금액: 50만원 ③ 입금계좌 : 국민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5. 목사고시 : ① 일시: 2018. 2. 5(월)~6(화)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목회대학원 강의실
6. 전도사 경력 계산은 만으로 하되, 계산일은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7. 직장과 목사직은 겸할 수 없으므로 직장을 가진 자는 목사고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8. 목사고시 응시 자격은 헌법 제37조 및 헌법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9. 서류심사 이후에는 목사고시 서류일체와 고시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사 김양인 고 시 위 원 장 목사 김민규
총 무 목사 엄기실 고시위원회서기 목사 이석호